

輸銀, 스위스 시장에서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지원용 자금 선제적으로 마련  
- 2.5억 스위스 프랑화 채권, 달러 차입금리보다 20bp 이상 낮은 수준으로 발행

- 한국수출입은행 ([www.koreaexim.go.kr](http://www.koreaexim.go.kr), 은행장 김용환)은 4년 만기의 2.5억 스위스 프랑화(2.7억 달러 상당)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3월 6일 밝혔다.
- 발행금리는 미 달러로 스왑 후 **Libor+137bp** 수준으로, 미국 등 주요 외화차입시장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**20bp** 이상 차입 비용을 절감한 수준이다.

< 주요 발행조건 >

|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|
| 통 화 · 금 액 | 2.5억 스위스 프랑<br>(미화 2.7억 달러 상당)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형 태       | 고정금리채권  |
| 만 기       | 4 년   |
| 금 리       | 스위스 프랑 스왑금리* + 1.0%<br>(미달러 스왑후 3개월 Libor + 1.37% 수준) |
| 주 간 사 기 관 | RBS, UBS  |

\* 스위스 프랑 스왑금리: 스위스 프랑 Libor가 고정금리로 교환시 사용되는 금리

-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“최근 중동지역 정정불안으로 스위스 프랑이 안전자산으로 부각됨에 따라 현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, 기존 차입금리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발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

- 이번 채권 발행은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확산 우려, 유럽 재정 위기 해결 지연 및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,
-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외화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 향후 원전, 녹색성장, 자원 개발 등 국가전략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.
- 한편, 수출입은행은 차입시장 다변화 및 차입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도 루피화 1.3억 달러 등 금년들어 5개 非달러화 틈새 시장에서 저금리로 총 15억 달러\*를 조달하였다.

\* '11년 수출입은행 외화채권 총 발행규모(18억 달러)의 78%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의 | 국제금융부 외화조달팀장 윤희성 (☎ 010-7167-0984)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홍보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보팀장 | 채상진 (☎ 010-5291-4792) |

